

EECA를 다녀와서

李 恒 燮
• 本会 國際部長

1. 개요

유럽 전자부품 제조자 협회 (The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EECA)는 유럽 전자부품 제조회사들의 각국별 단체들의 대변자로서 1973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全 EC 국가 전자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EECA의 기본 목적이다. EC 국가 전자부품산업의 잠재적 시장성은 방위산업이나 전자통신분야, 그리고 가전제품의 수요에 의존하는 것이다.

EC 회원국가들(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의 관련 협회는 EECA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현재 EECA는 벨지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서독, 영국, 스페인 등 7개국의 500여개 전자부품 제조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EECA의 회원사들이 고용한 고용인은

약 25만명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종사자와 비슷한 수치인 것이다. 그 구성요소에서부터 복잡하고 상호 이해의 상충되는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1개국 1개 단체보다도 더욱 분명한 방향 제시나 협동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EECA의 위원 한사람은 EC에 대한 낙관론자로서 EC는 5년후 쯤에는 정치적 국경선은 존재할 것이나 경제적 국경선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경제적 「United States of Europe」을 말하는 것이었다. 2차대전후 영국의 처칠경은 정치적, 경제적 「United States of Europe」을 제창하였던 스위스 루체른에서의 연설이 생각났다. EC는 상호보완적인 수술을 가한다면 진정으로 세계 최대 강국이며 경제대국이 될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2. EECA의 조직과 관련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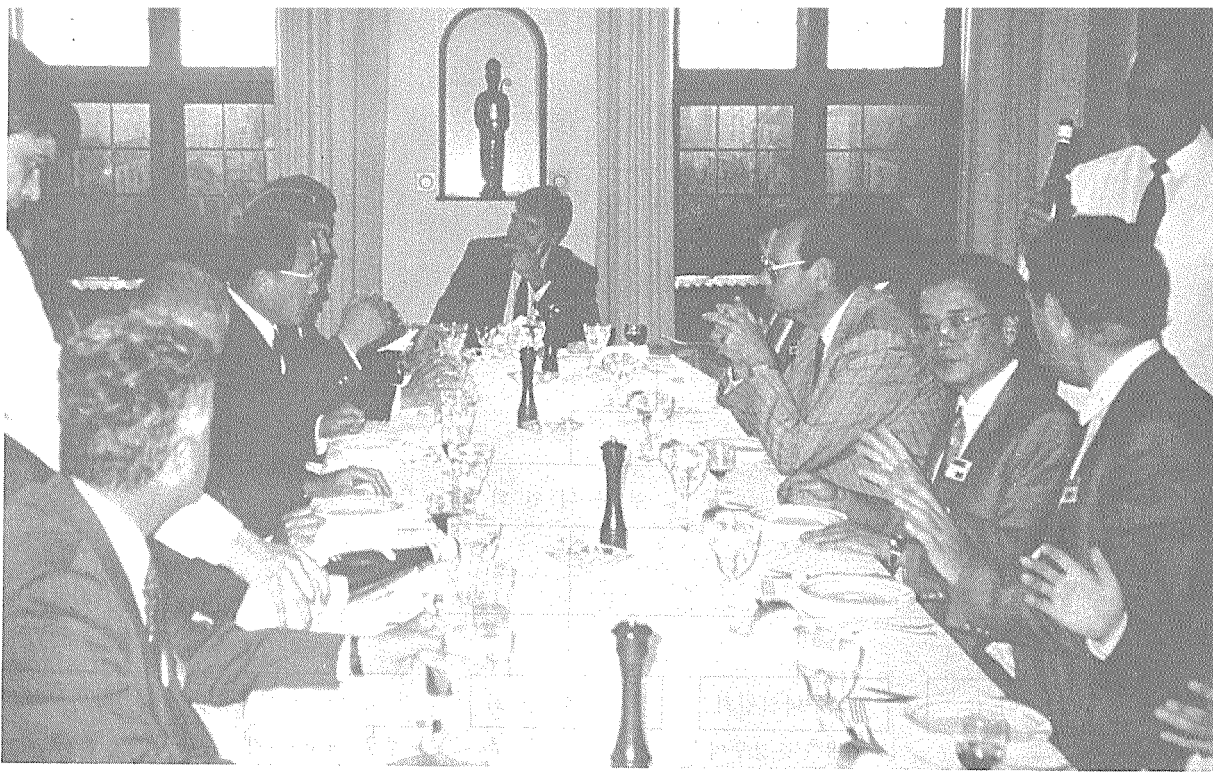
가. 운영위원회 (Council)

운영위원회는 각개 회원국들로부터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회장과 부회장을 2년 임기로 선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간 2회 열리고 장소는 회원국들의 首都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나. 회장단 (President's Committee)

회장단은 회장과 각개 회원국들의 1명의 대

지난 6월 10일 벨지움의 브뤼셀에서 「EIAK / EECA會議」가 개최되었는데 同會議에서는 韓國産 CPT의 對 EC輸出物量, 生産規模, 輸出自律規制 등에 關해 進지한 토의를 벌였다. 이에 그 會議結果를 요약, 게재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必讀을 권한다.
(編輯者 註)



EECA/EIAK 대표들의 회의 장면

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수립, 검토, 추진을 하는 기구이며 운영위원회의 강력한 자문기관이다.

다. 전문위원회 (Specialist Committee)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기구로서 특별한 이해관계 분야의 업무를 다루며 위원회 회장은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 대표자이다.

(1) CEMEC - The Committee of European Association's of Manufacturers of Electronic Components (유럽전자부품제조자협회 분과위원회)

동위원회는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기술자문, 전자부품의 표준화, 품질보증 등의 문제를 다룬다.

(2) Foreign Trade Committee (FTC)

(외국무역위원회)

EECA 회원국들과 외국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과 공정한 무역거래 달성에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대표적인 추진사업으로는 GATT 협정하의 수입관세 개정, 세관수속, 원산지 증명 규칙, 대 EC 투자문제 등을 다룬다.

(3) Statistics Committee (통계위원회)

통계위원회는 EEC 국가들의 전자부품의 생산, 수입, 수출에 관련한 통계를 수집, 발간하

는 기구이며 각개 회원국들의 주요경제 통계 수치에 대한 분석도 하는 기구이다.

EECA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통계자료도 지원해 주고 있다.

(4) 상품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현재 시행하고 있는 NIMEXE 규칙하에서 전자부품의 개조, 변경 등에 대한 EECA의 견해를 조정한다. 또한, 장차 시행할 일반관세 요율을 위한 상품의 통일 규칙에 대한 EECA의 견해도 조정,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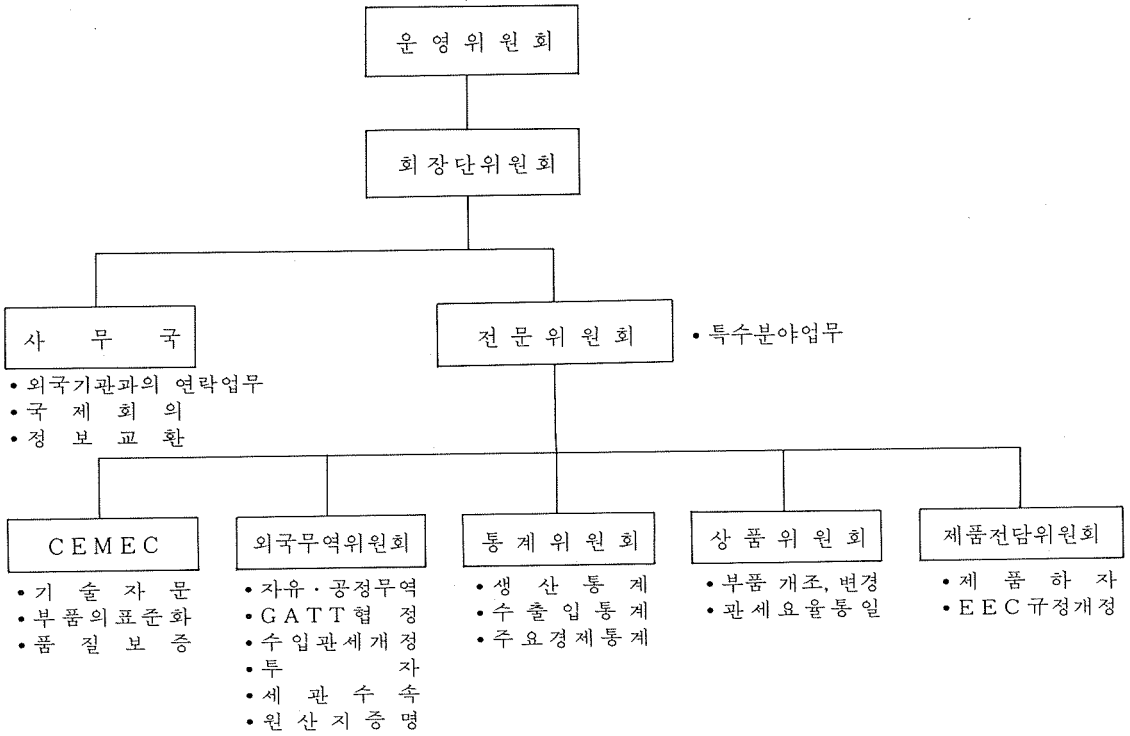
(5) 제품전담위원회

제품전담위원회는 제품 하자문제에 대한 EEC 규정의 개정 등에 관여하고 또한 EECA의 견해를 조정, 보완한다.

라. 사무국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EEC 위원회와 국제기구간의 연락업무를 전담하고 사무국은 부위설에 두고 있다.

EECA와 다른 기구간의 긴밀한 연락업무는 물론 사무국과 국제 전자산업협회간의 매일 매일의 접촉과 필요시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EECA의 조직 및 기구도

3. 유럽의 전자부품 산업 현황

가. 생산

과거 30년의 기간을 통하여 유럽의 전자부품 산업은 유럽 전자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81년 유럽의 전자부품 총생산은 75억 ECU (European Currency)에 달했으며 1970년부터 1981년까지의 EC 주요 회원국들의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달했다. 가격면에서도 전자부품 가격은 많이 상승하였으나 가전제품 가격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정 부품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도 있다.



좌로부터 Mr. Reiner Linhard(ITT독일공장장), Mr. Neville Lyons(사무총장), 본회 李恒燮 國際部長

유럽의 전자부품 생산 현황

단위 : 百万弗, 百万E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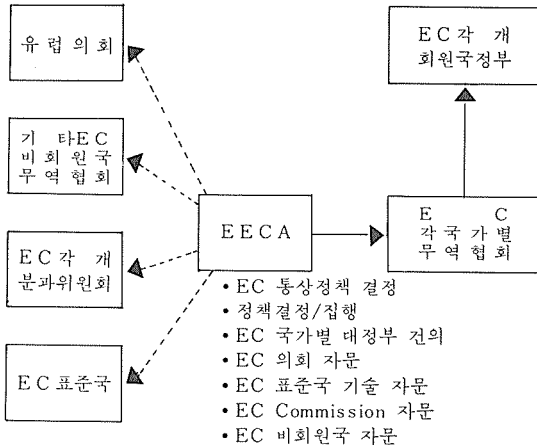
1981년 총생산	1970년 IC 총생산	1981년 IC 총생산
8,000弗 (7,500ECU)	120弗 (111ECU)	900弗 (836ECU)

※1981년말 현재 각국 환율(対 1 ECU)

- Belgium Franc : 41.41
- British Pound : 0.57
- French Franc : 6.19
- US \$: 1.077
- Deutche Mark : 2.45
- Italy Lire : 1,303.66
- Luxembourg Franc : 2.69

나. 고용

유럽의 5개 주요 국가들의 전자부품산업에



EECA와 EC 공동체와의 연관 관계

만 종사하는 고용인은 25만명에 달하고 고도의 숙련공과 기술인들의 수요 증가에 고심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위한 훈련에 투자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다.

전자부품 관련 고용인 1인당 생산성은 전유럽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고용인 1인당 총생산은 1970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 3 배 가까이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EC의 주요 5 개 국가들의 실업률은 세계 최저 수준에서부터 악화되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각종 관세 인상, 수입 규제 등을 신속히 과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EC 각국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한다.

4. EECA 협회 회원사

가. 벨지움(Belgique)

FABRIMETAL(과거 프랑스 전기협동조합이었으나 현재는 벨지움전기조합임.)

Rue des Drapiers 21,
B-1050 Bruxelles,
Tel:(2) 511, 23, 70
TLX : 21078

나. 서독(Bundesrepublik Deutschland)

Fachverband Bauelemente der Elektronik,
FV 23 IM ZVEI,
Zentralverband der Elektrotechnischen
Industrie EV.

Blumenstrabe 6, D-8500 Nürnberg

Tel : (0911) 204916

TLX : 626078

다. 프랑스 (France)

Syndicat des Industries de Tubes Electroniques
et Semiconducteurs (SITELESE)

Syndicat des Industries de Composants
Electroniques Passifs (SYCEP)

11 Rue Hamelin, F-75783 paris,
Cedex 16.

Tel : (1) 5051427

Tlx : 611045

라. 영국 (United Kingdom)

Electronic Components Industry Federation
(ECIF)

7/8 Savile Row, London, W1X 1AF

Tel : (01) 437 - 4127

Tlx : 8954834

마. 이탈리아 (Italia)

Associazione Nazionale Industrie
Elettrotecniche ed Elettroniche (ANIE)

Gruppo 29° Componenti Elettronici

Via Algardi 2, 1-20148 MILANO,

Tel : (2) 32, 64

Tlx : 321616

바. 네델란드 (Nederland)

Grope Fabrieken Van Aktieve en
Passieve Elektronische Bóuwelementen
(FAPEL)

Bredewater 20, NL-2715 CA Zoetermeer

Tel : (079) 219221

Tlx : 32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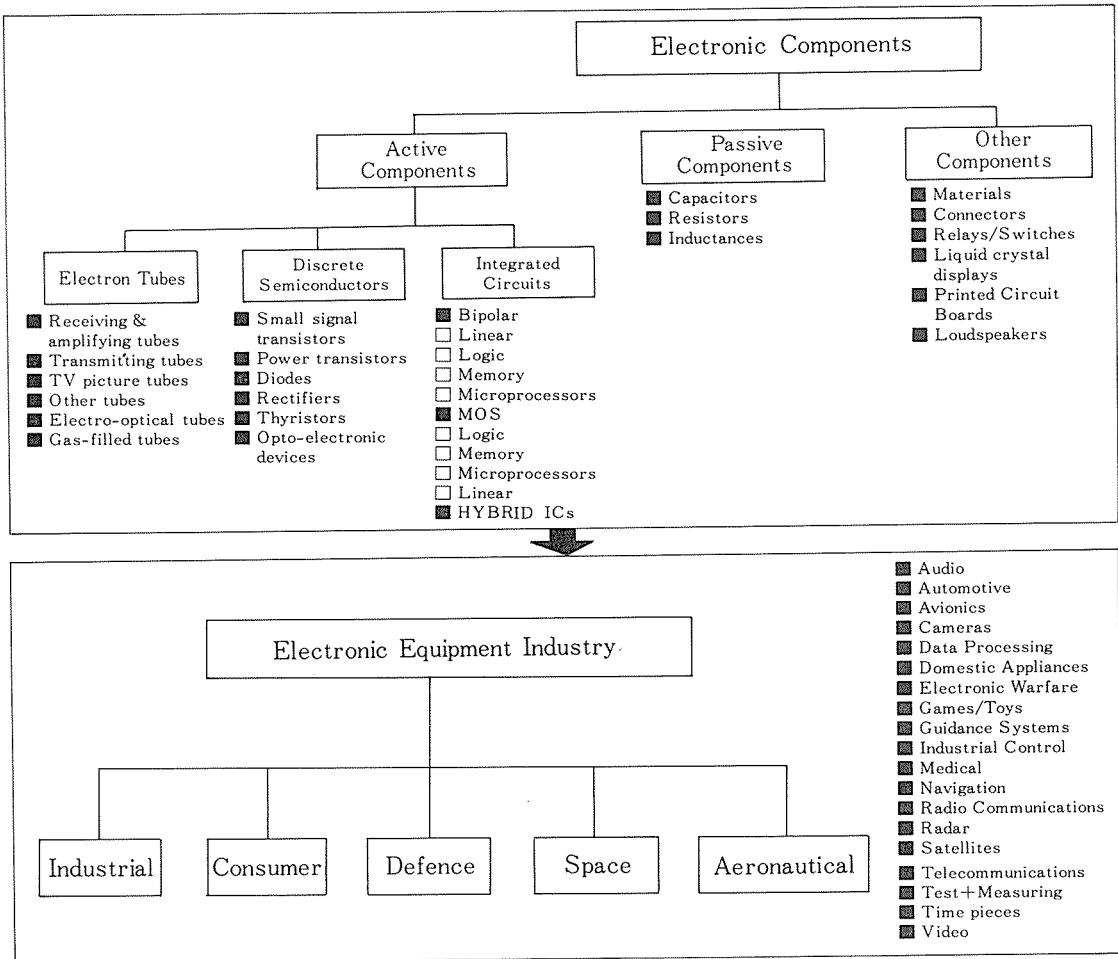
사. 스페인 (Spain)

Principe de Vergara 74 (4th planta)

Madrid 6

Tel : (1) 411, 1661

전자부품 및 부속품 분류표



Tlx : 43908

5. EIAK / EECA 협력회의

1986년 10월26일 EECA의 회장단 그룹 8명은 한국산 CPT의 대 EC 수출 물량을 협의하고 한국의 CPT 생산시설의 과대문제 등을 협의하고자 본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가졌다. 동회의에서는 EECA에서 주로 한국의 CPT 과대 생산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차기회의를 '87년 전반기중에 브뤼셀 EECA 본사에서 갖기로 합의하고 끝을 냈다.

동회의에 대한 후속회의로서 6월 10일 브뤼셀에서 EIAK / EECA 회의를 갖기로 하고 관련 회원사 대표 6명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

다.

제 2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제 역시 제 1차 회의에서와 같은 주로 한국산 CPT의 대 EC 수출물량, 생산규모, 수출 자율규제 등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하였으나 본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3차 회의를 오는 9월 중순경 서울에서 갖기로 하고 제 2차 회의를 마쳤다.

EIAK / EECA 대표자들이 마주 앉은 회의는 예측한대로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였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전통과 보수적인 기질이 농후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논리적이어야 하며 밝은 이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분을 쌓아야 이야기가 쉽게 풀

릴 수 있음을 이들의 주장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러나 통상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이들의 관행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으나 솔직한 한국의 CPT 산업현황을 밝히게 되었고 어떤 형태의 규제이던 규제를 가하고자 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 3차 서울회의를 고대해 보며 제 2차 EIAK/EECA 브뤼셀 회의록을 정리해 본다.

6. EIAK/EECA회의의 결과 보고

가. 개요

(1) 일시 : 1987. 6. 10. (수)

(가) 1차회의 : 10 : 00 - 12 : 30

(나) 2차회의 : 14 : 30 - 17 : 00

(2) 장소 : FABRIMETAL 사무실 (벨지움 전기협동조합)

(3) 의제 :

(가) 양측소개

(나) 1986. 10. EECA 회의록 자료 보완

(다) 1986. 10. EIAK 회의록 자료 보완

(라) 1986. 10. EECA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EIAK 제안

(마) 자유토론

(바) 차후 조치에 대한 결정

(4) 참석자 :

(가) 금 성 : 부장 윤세정

(나) 삼 성 : 상무 윤우현

과장 김인식

상무 이영철 (삼성물산 런던 지사장)

(다) 오리온 : 부장 한상국

과장 김월섭 (오리온 파리지사 근무)

(라) EIAK : 부장 이항섭

(마) EECA측

• 회장 : Mr. Jacques Bouyer (불)

EECA Tubes Committee 회장

이사회 의장

RTC-La Radio Technique Compelee

• 사장 : Hugues Garin (불)

VideoColor SA

• ITT(독) 지점장 : Mr. Reiner Linhard (독)

ITT 부품공장장

• SEL 전자부품본부장 : Mr. Eberhard Nill

(독) Standard

Elektrik Lorenz AG.

• SEL 전자부품영업이사 : Mr. Hans Schaefer

(독) SEL 부품영

업이사

• Philips 전자부품/자재담당이사 : Mr. Ton

Vervoort (네델란드)

• Philips CDP 담당이사 : Mr. Jess Pos

(네델란드)

• 사무총장 : Mr. Neville Lyons (영)

나. 회의 내용

(1) 양측 대표자에 대한 소개 (EECA/EIAK)

(2) 1986년 10월 EECA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자료 보완 설명.

Mr. Ton Vervoort가 EECA에서 준비한 새로운 자료에 대한 브리핑.

(3) Mr. Bouyer (회장)의 부연 설명

(가) Mr. Vervoort의 briefing에 대한 보충 설명
세계적인 무역불균형 문제로 인한 국가간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으나 각국의 국내문제 (선거, 인플레이, 실업문제 등)로 인하여 아무런 결실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무역균형 문제로 인한 무역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리라고 예측한다.

(나) 작년 10월 EECA에서 제기한 협력회의가 다소 늦게 열리게 된 것이 유감스러우나 EECA에서 예측한 날짜보다는 약 20일 늦은 것이다.

(다) 기본적인 상호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EECA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EIAK의 검토를 요망하며 제재나 규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협력의 바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EC 국가의 관련산업의 도산이나 우려에 대하여 책임있는 지

원칙을 강구해 주기 바람.

(4) EIAK의 제안 설명

(가) EIAK 회장 서한 및 EIAK 자료 전달

(나) EIAK 자료에 대한 설명 (부장 이항섭)

1) 자원과 기술부족 상태의 한국 전자산업을 EC 국가들의 전자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단정이다.

2) 소위 말하는 신생공업국가들 중의 하나인 한국 전자산업도 수출에 치중하는 것은 사실이나 EECA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물량 공세를 피하고자 결정할 바 있으며 이미 자율규제를 실시중에 있다. (예 VTR, MWO 등)

3) 한국의 CPT대 EC수출은 불과 2년전에 시작되었으며 그간 관련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1986년말 1,600만대, 1988년말 약 2,400만대의 CPT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오랜기간의 투자에 힘입은 것이다.

4) 일방적인 수출 위주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적인 쌍무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가능한 EC 국가들의 처韓 부품 수출을 적극 권장한다. (목록 제시)

5)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간주하는 논리는 진정으로 한국의 전자산업이나 실상을 모르는 단언이다.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상에 필연적으로 겪어야하는 생산 위주의 산업발달은 하나의 과정일뿐 일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6) 한국의 CPT 2,4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 1988년 말까지 한국의 국내 수요는 '87년 1,100만대, '88년 약 1,400만대로 예상하며 나머지 1,000만대 중 처 EC 수출물량은 '87년 110만대, '88년 198만대로 추정할 뿐 처 EC 시장만을 목표로 생산시설을 증설한 것이 아니다.

(5) Mr. Bouyer (회장)의 Comment

(가) 현재 한국의 CPT 생산능력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한국의 내수시장 규모에 근거하여 수출물량을 결정해야 한다.

(나) 현재 미국의 보호주의 물결은 EC를 자극하고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EC대신에 미국이 움직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은 대신 역할을 담당하는 희생물이 된 것이다. EC국가는 미국처럼 위험스러운 경기를 피하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다) EC회원국내의 산업보호 측면에서 한국산 전자제품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EC국가의 공통 견해는 수입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라) EC회원국들의 Commission (분과위원회)은 EC국가들의 수도에 산재해 있는데 이들 모두는 자국내의 관련산업의 도산이나 실업문제 등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국가의 제품도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마) 한국의 위협적인 초과 생산시설을 완비했다는 것은 마치 Club House의 회원으로 한국을 맞아들이려는데 품 속에 다이아마이트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초대를 꺼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 CPT 세계시장 점유율이 25%에 육박하는 것은 심히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국 국내시장 규모에 비교하여 엄청나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EECA의 기본입장이다.

(사) 물론 수입규제, 반덤핑 제소 등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나 반덤핑 적용은 모기가 황소를 무는 정도의 영향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규제 방법밖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

(아) 이상의 협력관계 성립에 실패할 경우 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며 상호 공존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뿐이다.

(6) EIAK의 Comment

(가) 한국의 CPT 생산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EC 시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 주기 바라며 일본이 엔고 상승으로 인한 제3국의 주문량 쇠퇴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처 EC 수출은 이미 자율규제를 실시중에 있다. (CTV, VCR, MWO)

(나) EECA에서 산정한 한국 시장수요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계산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 수출이 한국에서처럼 중요하다고 느끼는 국가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는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업은 경제발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제 4대 채무국이 된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 것이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 경제의 급성장이 무슨 이유로 EC국가들에게 해롭다고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 현재까지의 무역 관행을 타하는 데는 한국 전자산업계의 미숙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으나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배려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이곳을 찾아온 것이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자 온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마) 이상과 같은 문제를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EIAK/EECA 협력 계약 체결을 제안한다. 검토후 의견 주기를 바란다.

(7) Mr. Bouyer의 Comment

(가) 협력관계 계약은 검토해서 알려주겠다.

(나) 장시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므로 9월 중순경 서울을 방문하고자 한다. 귀국후 EIAK 회장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라며 8개월전 예상했던 60~70만대보다 3배가 많은 1988년도 200만대의 CPT 수출 예상은 다분히 위협적인 수량이다.

(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CPT, CTV는 약 300만대이나 8년전 일본과 협상타결한 숫자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현재 EC 국내에 32명의 EIAJ 멤버가 EECA와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빠) 보다 세부적이고 확실한 제안을 오는 9월 중 서울 방문시 의논하고자 하며 이는 EIAK를 도와주하고자 함이다.

(마) EIAK에서 요청한 자료를 관련 회원국에 Memorandum을 돌려 수집, 전달해 주겠다.

(바)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EIAK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리라 예상하며 9월중 방문을 기대하겠다.

EIAK : 본사에 돌아간후 관련사와 일정을 맞추어 시기를 알려주겠다.

다. 대처 방안

(1) 관련업체의 보다 확실한 대응방안 수립이 요망되며 시장수요, 생산, 수출 등 보다 분명한 계획을 수립 서울회의시보다 유리한 고지점령 노력이 절실히 요망됨.

(2) 적극적으로 대응, 관계자에 대한 보다 긴밀한 관계유지 노력을 기울일 경우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음.

보고듣고 모은슬기 익혀쓰면 과학생활